

## 회고전(回顧展)

청록산수(靑綠山水)의 장관은 실로 현란 장려하였습니다. 중국 원체풍(院體風)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조 말기 도화서풍(圖畫署風)이 골자가 되어 있되 실경(實景)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관념 산수화(觀念山水畫)에서는 찾기 어려운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경에는 피이하게 틀어진 고목나무들에 솟아오른 신록이 눈부시고 그 아래 피어 흐드러진 꽃은 짙은 푸른가 무슨 이름의 풀꽃인가, 새하얀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신록 속에는 아직도 깔끔히 견혀지지 않은 봄 아지랑이가 산언저리에 가물거리는데 숨을 듯 가리운 듯, 질게 얽게 어른 보이는 숲의 모습하며, 정연히 갈아진 밭너머 꽃처럼 녹색이 피어 오른 나무들과 어울려 흐르는 물이 펄이나 다정하였습니다. 청산의 준(皴)은 거의 찰(擦)을 쓰지 않고 준법(皴法)으로만 산령(山嶺)의 원근과 음영을 나타내는 엄격한 품격을 지키고 있어, 당대 으뜸가는 준법의 대가의 풍모는 이미 오십 년 전의 이 작품 속에 역력히 생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록산수의 신품이야.”

“맑고 신선하면서 노숙한 이 필법을 좀 봐요.”

“고목에 솟아난 이 신록…… 이십대 약관으로 이런 대작을 그렸던 청정(靑汀) 그 사람의 당시 모습을 보는 것 같군.”

십곡대병(十曲大屏)에 연폭(連幅)으로 그려진 이 대작 앞에서 관람자들은 제각기 탄성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래도록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지루함도 당자가 나타나지 않아 싱거워져 버린 테이프 절단도 잊어버린 듯 그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기다릴 수 없어 작가 참여 없이 테이프를 끊고 난 후에야 회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가 소장하고 있는 거지?”

“글쎄 오주완 씨 소장이라는데 오주완 씨가 누구더라.”

“정묘 초하라고 되어 있으니 오십 년 전인데 이 선명한 녹색의 농담을 봐요. 이 작품은 그 해 선전 특선 작품이었다네. 그 지독한 일인들도 감히 흠을 잡을 수 없었던 건데 민씨네의 어느 수장가의 손에 들어갔다가 일인의 손에 넘어갔고, 해방 후 잠시 행방이 묘연하다가 동란 후에 수장가 김두환 씨가 입수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주완 씨가 출품한 거로 되어 있군.”

“그런데…….”

“그런데 뭐요?”

“이천팔백만 원이랍니다.”

“이천팔백만…….”

잠시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가 내어뻐듯

“굉장하군.”

“굉장하지. 그런데 벌써부터 원매자가 있었다는 풍문이오.”

“허어.”

“칠봉 물산의 서 회장…….”

“돈이 많으니깐.”

“그리구 무엇보다도 청정 그분도 이제는 이런 산수를 그릴 수 없지 않소?”

“첫째로 이런 회견(繪絹)도 석채(石彩) 녹청(綠靑)도 그리 쉽게 구할 수야 없지.”

“어쨌건 이젠 환쟁이도 살판났지.”

화가들의 문답은 아닌 성싶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회고전의 주최 신문 중외일보사가 마련한 각테일 상을 둘러싸고 연로한 신사들이 각기 각테일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위 문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얼굴들입니다.

“대성황입니다.”

약제의 감초 격으로 이러한 모임으로 빠지는 일이 없다는 언론인 유경재 씨가 체머리를 흔들 듯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느 초로의 신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아 그야 청정 선생의 회고전 아닙니까?”

하고 받았고, 모두의 눈에는 긍정하는 빛이 서렸습니다. 그러나 찬사와 경탄에 둘러싸여 있는 청정 선생의 모습은 내 눈에는 너무나 처창(悽愴)하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예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무리 해도 쫓이는 일이 없는 혐의를 받아 연행되어 온 피의자(被疑者)처럼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을 얼굴 가득히 담고 우두망찰 서 계셨습니다. 항상 미안해 하는 것 같기도 한 그 표정은 언제 부턴가 그의 얼굴에 서려 버려 나눈 그의 다른 표정을 기억해 낼 수가 없어요.

짧게 깎은 흰머리털, 주름이 상처처럼 패인 이마, 입 양쪽에 길게 그어진 법령 이외에는 이마에 비하여 주름이 거의 없는 얼굴, 꼬리가 처져서 울면서 웃고 있는 것 같은 마늘 모양의 눈,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가 삼켜 버리는 것이 버릇이 된 것 같은 소심해 보이는 작은 입, 숨쉴 없는 손이 지은 솜 바지저고리가 어울릴 법한 촌티 나는 어수룩한 할아버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눈물이 왈칵 쏟아

아질 것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며 내 눈앞은 서서히 흐려져 갔습니다.

몇 달 전 중외일보사의 기획 사업의 하나로 이 회고전과 선생님의 화집 간행이 건의되었을 때도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은 듯 우두망찰하고 계셨죠. 일곱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도 한 번밖에 나가지 않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사고(社告)를 내어 널리 수장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선생님 자가 소장품과 미발표 작품과 신작도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장가들과는 어떻게 약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선생님 자신의 출품 작품은 매상을 주최측과 7대 3의 비율로 나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사오 세 때부터 팔십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오직 지묵과 화필과 물감으로 생애를 살아온 선생님에게는 한 점의 작품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본시 과작인 편인 데다가 겸손하고 어질면서 선생님에게는 고집이 있어 청탁을 받아도 선뜻 맡아 그리는 일이 없었고, 또 그려진 그림을 잘 챙기지도 않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잘 챙기셨다 해도 그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어 그림이 부지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른바 잡을손이 뜬 화가라 합니다만 그렇지도 않으시지요.

선생님의 죽마지우란 친구 한 분이 있었죠. 어느 중소 기업체의 사장인데 무슨 까닭인지 선생님은 이 사람한테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친구는 반가워하며 우선 소주 두어 병, 때로는 서너 병하고 마른 멸치 한 접시, 그리고 생마늘에 고추장 곁들여 대접했다는 겁니다. 대주호라고 알려진 선생님이 즐기시는 술은 고작 소주이고 안주도 다른 것은 드시지 않았어요. 하여튼 주기가 들면 이내 도연(陶然)해지고 판사람처럼 생기가 돕니다. 눈에는 광채가 번뜩이고 항상 구부러져 있는 등이 철사라도 넣은 듯 꼳꼳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빠뜨릴 수 없는 절차처럼 지묵과 화필과 물감이 준비되고, 선생님은 신이 들

린 듯 말없이 힘차게 화필을 놀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이 친구는 으뜸가는 선생님 작품의 수장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들은 청정 예술의 극치를 보여 주는 장대(壯大) 험준한 암산 풍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만큼 산령(山嶺)과 암벽의 조화를 깊이 관찰하고 절묘한 기법을 터득한 화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 구도(構圖)에 의한 엄격한 포치(布置)와 유현한 정신미(精神美)에는 실로 숙연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마당 뛰고 난 만신이처럼 선생님은 녹초가 되셔서 남은 소주를 다 비우고 그 친구 방에서 툴아떨어지는 것이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돌아간 후 선생님은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화우(畫友)도 많으셨지만 각별한 사이였던 우당(愚堂) 선생과 무수(無愁) 선생의 작고 후에는 화단과도 멀어지시고 인왕산 밑 오두막이나 다름없는 전셋집에 칩거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소주와 마른 멸치, 생마늘 등을 마련해 드려도 화필을 드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들 되는 사람이 조니 워커의 블랙과 고급 안주로 극진히 대접을 해도 선생님의 화흥은 일지 않았습니다. 친구분 생존시 선생님이 찾아가시던 곳은 후미진 곳도 아니어서 어수선한 장소였는데 그런 곳에서 그 기막힌 작품을 생산하셨던 분이 모처럼 그 아들이 마련해 드린 조용하고 아늑한 방을 마다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 아들 되는 사람이 그 많은 선생님 작품의 대부분을 엄청난 고가로 몇 몇 화랑에 넘기고 현재 사는 저택을 마련했다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수궁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 친구분은 속물 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는 무슨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나 보죠?

창작하는 공간은 조용하고 안정을 느끼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지만 안정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선생님 심부름으로 백당

선생 화실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선생은 공도 이루고 이름도 높은 노대가이십니다. 제가 치산에도 수완이 있어 재산도 만만치 않다고 듣고 있던 대로 삼청동 집은 솟을대문의 넓은 한식 저택이었습니다.

사동(使童)의 안내로 화실에 안내되었는데 고풍스럽고 운치 있는 방은 티끌 하나 없는 얼음 같은 장판이었고, 고급 가구 집기 벽에 걸린 소림의 신선도, 오원의 화조, 심전의 산수들이 모두 제자리에 놓여지고 걸려 있어, 흐트러진 데가 없고 붓걸이에 걸린 붓조차도 장식물로 보였습니다. 화구들은 삼면 벽에 놓인 몇 쌍의 화류 문갑 위에 역시 아름다운 장식물처럼 정연히 놓여 있구요.

나는 무엇에 묶인 것 같은 부자유와 불안을 느껴 몸이 뒤틀려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청아한 방이라는 첫인상은 중압감으로 바뀌어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짐짓 새로 만들어진, 선생님에게는 어색한 그 방이 선생님의 마음을 끌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소주와 마른 멸치 생마늘쫄음으로 손에 넣은 그 많은 그림을 상상도 못할 만큼 비싼 값으로 팔아 새집 짓는 데 썼다는 그 사람의 소행을 생각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그림값은 엄청나게 뛰어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랑에서 열린 4대가전(四大家展)에 전시된 선생님의 전지(全紙) 산수는 이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었고, 추경 선면(扇面) 한 점 값이 칠십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작인 편이라 하여도 소장시에 전국을 두루 돌며 그린 그림 수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선생님이 오랜 세월 고수해 오신 엄격한 전통적 화법이 선생님 자신의 개성으로 심오한 정신성을 갖추게 된 것이 회갑을 바라보게 되었을 무렵부터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피나는 수련과 각고(刻苦)의 역정에서 산출된 작품 수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선생님은 언제나 표표히 집을 떠나 산령을 대하고 물에 접하며 눈길은 항상 실경의 산수 너머를 더듬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합

니다. 그러므로 그의 산수는 형상이 아니고 심상(心象)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도자(求道者)는 노자 여비 챙길 생각은 아예 없고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주모에게 술값으로 한 폭의 그림을 그려 주고, 역시 못마땅해 하는 여인숙 안주인에게 숙식비로 몇 폭의 그림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친이 작고하시고 집안이 몰락한 후부터 선생님은 항상 가난하셨습니다. 한 그릇 몇십 전의 식사 값으로 그려 준 그림들이 몇백만 원으로 거래되어도 그것은 선생님과 관련 없는 수작이었고 해방 후 맡게 된 H대학 미술과 교수의 봉급이 얼마 동안의 고정 수입이었습니다. 하기야 단 세 식구, 그만하면 적빈(赤貧)은 면할 터였지만 선생님의 곤경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회고전에 대한 기획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선생님의 곤경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무악재 고개 언덕에 간신히 마련한 한 옥도 양옥도 아닌 이십 평 남짓한 집이 선생님 모르는 사이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려 새 주인의 명도 재촉이 성화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쫘 선생님을 찾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던 내가 좀 언짢은 바쁜 일로 이 주일 만에 선생님을 뵈러 갔을 때 그 집은 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긴 터기 때문에 서향의 괴로운 햇빛이 타는 노염의 오후였는데 집에는 선생님 외의 가족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피죤셔츠에 안동포 고의를 입은 선생님은 마구 샷대질을 하고 있는 사십대 여인 앞에서 우두망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은 북쪽 끝에 붙은 방이었지만 출입문은 서쪽에 나 있고 그 출입문으로 해는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지 같은 집이었다면 잡지 않았어요. 그 건달한테 속았던 말예요. 마침 작자가 나섰으니 학질 떼었지 큰일날 뻔했다구요. 할아버지 이번엔 꼭 약속 지켜야 돼요. 그러잖으면 계약금 떼구 또 좀 처럼 다른 작자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건달—— 선생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자제를 말함이 틀림없습니다. 요컨대 아드님이 이 집을 이 여자에게 잡히고 돈을 갚지 못해 넘어간 것을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몰리고만 있는 선생님 대신 내가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보증하겠어요.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한 달이라뇨. 얼마를 기다려 줬는데.”

“한 달만요.”

“흥, 몇 한 달을요.”

나는 한 마디밖에 모르는 구관조처럼 되풀이했습니다. 한 달—— 아아 이 시간을 극도로 농축시켜야지. 보이지 않게 흐르는 시간의 농도가 만지면 끈적거릴 만큼 농축시켜야지. 나는 어느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만요.”

드디어 그 여자는 지쳤던 모양입니다.

“한 달이라.”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속셈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러면 한 달치의 사글세로 오만 원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깐 한 달 세드는 거죠.”

“사글세? 누가 댁에 세들어 달랬나요?”

“집 사신 분에게 그 돈을 주세요. 그리고 꼭 한 달만—— 네, 아주머니 이분은 귀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닥달하시다간 후회하십니다.”

말주변 없는 내가 그런 엉너리를 늘어놓는데 여인의 마음이 변했는지 속셈이 닿았는지 양갈지던 태도가 풀리며

“그럼 오늘이 초사흘이니깐 새달 초닷새에는 꼭 나가 주셔야 해요.”

하고 한 달에 이틀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란 숫자는 물론 즉흥적인 것이었지만 심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 일이 뻔하지만 이번에는말로 단단히 선생님을 부추겨 드리겠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생님의 그림값은 대단합니다. 급해서 후려쳐지면 모르되 회고전이 결정된 이 마당에 주최 신문지상에는 며칠을 연이어 전시회와 작품의 소개 기사가 나갈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지 열 점쯤과 쉽게 나가는 소품을 되도록 많이! 나는 힘있는 대로 선생님 시중을 들어 드리고 세 평쯤이라도 좋으니 화선지와 화구쯤은 늘어놓을 수 있는 화실로 쓸 방이 꼭 하나 달린 아담한 집이나 엄두도 못 내는 맨션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시민 아파트 하나를 물색해야지. 아 바쁘다! 나는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한 인물의 입버릇인 이 말이 점잖은 분들의 빈축을 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 속에 탄력을 느낄 때 무의식중에 새어나오는 이 말은 삶의 에너지의 실감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음날부터 우리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화필을 드셨던 것입니다. 구월도 초닷새를 지나니 지겹던 서향 햇빛도 극성을 떨지 않게 되어 작품 제작에는 알맞은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회고전은 시월 이십일로 확정되어 선생님이 시월 초닷새 안으로 작품을 끝마치시면 그날까지 표구도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틈만 나면, 아니 없는 틈도 억지로 내어 선생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일상의 심부름에서부터 화구의 조달까지 해 드리며 내 마음은 항상 아팠습니다. 배우계 일대를 휩쓸던 호상의 자제로 약관 때 오히려 청묵(靑墨)으로는 중국의 송연(松煙), 유연(油煙)을, 황묵(黃墨)으로는 공연(貢煙), 대자원(帶子園)을 썼고, 물감은 석채(石彩)의 당채(唐彩)를 쓰셨던 분입니다. 원숙의 극치에 이른 노경에 탁한 토연(土煙)을 쓰셔야 하는 처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요. 물감도 인조 석채조차 구입하실 수 없는 궁핍을 어찌하겠습니까. 화선지만 해도 옥판(玉板)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나 대청정입니다. 육십 년이 넘는 화도(畵道)에 마무리라도 하

듯 그의 필치는 괴이 험준한 고산을 소리내며 흐르는 물을, 스산한 한림(寒林)을, 태탕(駘蕩)한 춘색을, 풀내음이 물씬 풍기는 초여름들을, 불타는 단풍을 전개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에게는 아무 시름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림이 돈이 되리라면 그는 오히려 크게 놀라고 노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창조의 기쁨이, 식어 가고 있던 생명의 열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구월도 앞으로 이삼 일을 남긴 어느 날 나는 또 무악재의 선생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날 나는 바빴습니다. 그 동안 완성된 작품이 십여 점이 되어 선생님 작품을 맡아 표구를 해 온 명신사 이수행 씨에게 연락을 하여 그도 네 시까지 선생님 댁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도 여전히 화선지를 펴고 화필을 움직이고 계시더군요. 약간 청각이 약해지신 데다가 작품에 열중하고 계신 모양으로 내가 방에 들어간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방 한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그림은 안개가 자욱한 아침 숲이었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지고 우아한 낙엽송이 몇 그루 꿈속의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몇 그루의 같은 나무가 더욱 유현하게 보이고 좀더 멀리 안개 속에 묻힌 나무들이 이 숲의 깊이를 말하듯 보일 듯말듯 아스라이 서 있습니다. 그 깊이는 공간의 깊이라기보다 영혼의 깊이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유원하고 현묘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안개에 묻힌 나무들을 그리기 위하여 마약 물로 종이를 우린 모양으로 종이는 아직 폭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필세에 붓을 잠가 더욱 먹빛을 빼고 물기를 훑어낸 후 젖은 종이 위에 붓을 대려 하시던 순간입니다. 갑자기 사모님이 뛰어들어와 젖은 종이 위를 절벽절벽 밟고 방을 건너질러 반침계로 갔습니다.

“사모님!”

찢어지듯 내가 소리친 것과 젖은 종이가 유현한 안개 속의 나무들과 함께 사모님의 발에 뭉개져 찢어진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

었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나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사모님이 희 얼굴을 돌렸습니다. 음산한 얼굴의 치켜뜬 눈이 흰자위뿐이었습니다. 나는 또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습니다.

“악마!”

사모님은 이번에는 느린 동작으로 몸을 돌려 반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자 김이 빠져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낡아빠진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별써 약 먹일 시간이 됐어?”

선생님이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또 그림 위를 절벽절벽 밟고 나가 버렸습니다.

무참히 더럽혀지고 찢겨진 그림—— 그것은 그림이 아니고 선생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하고 안타깝고 원통하고 서러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가 없어서 그 겸허하고 깊은 인간성과 오직 예술에만 바쳐졌던 장장 세월의 각고의 수련과 피나는 각고 끝에 이른 높은 경지와 뛰어난 천분(天分)과 마땅히 누려야 했을 영예와 안정과 충족된 생활, 그 모든 것이 안타깝고 서러워 나의 슬픔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울 건 없어요. 울 건 없어.”

선생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 구부러진 선생님의 등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못하시는 그는 그저 그렇게 우두망찰 앉아만 있어 그 모습은 더욱 처창해 보였습니다. 처창과 고독을 형태화한다면 이러한 외롭고 노쇠한 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삼 울 것은 없습니다. 나는 사모님을 잘 알고 있었

으니까요.

내가 사모님을 처음 본 것은 우리 집에서였습니다. 이십 년 전 일이지요. 당시 아버지는 인사동에서 골동상이랄까 고물상이랄까, 하여튼 가치가 있고 없고 간에 옛것을 취급하고 계셨습니다. 골동품은 육이오 동란 때문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지요. 미처 처리를 못하고 가족이 피난간 뒤의 빈집을 그런 극한 상태에서도 턴 사람이 있었던 모양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같은 험값으로 팔고 간 물건이 가게에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동란으로 낙탁한 수장가들이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하여 들고 나오는 물건들도 많았구요. 한편 수복한 지도 오 년째에 들어설 무렵이라 그간에 자리잡은 신흥 부유층의 수요도 늘고 있어 장사는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 드릴 말이 있어 가게로 나간 일이 있습니다. 인사동 가게문들은 대개 다섯 시면 닫힙니다. 그러나 골동상은 문을 닫은 후에도 거래할 때가 많지요. 여덟 시가 넘었는데도 아버지는 가게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십 전후의 어느 부인과 대좌하고 계셨는데 그 부인의 거동이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눈등이 폭 꺼져 있으나 은행 꺼풀 눈이라는 얇사한 눈매에 오똑한 코, 약간 큰 편이지만 모양 좋은 입술,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허물어진 데가 있고 아직 젊은 나인데 조금만 표정을 움직이면 삼각형으로 보이는 좁은 이마에 주름이 깊이 잡혀 그것이 왠지 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머리 빛깔이 너무 검고 술이 많은 것도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구요. 단정한 생김새인데 공연히 잘 웃고, 그럴 때마다 약간 몸을 꼬고 는 입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이 무의식중의 교태일지는 몰라도 한창 결벽했던 소녀의 눈에는 몹시 불결하게 보였어요.

요령부득의 말을 많이 늘어놓은 끝에 그녀는 가지고 온 벼루를 내어놓았습니다. 고물이건 골동이건 이런 거래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아버지가 붙인 값에 아무 이의도 없이 대수

롭지 않게 벼루를 놓고 갔어요.

“내가 보기엔 단계(端溪)에 틀림없는데 좀 이상하군.”

상당한 감식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몹시 의아해하셨습니다.

“흠쳐 온 것 아닐까요?”

나는 공연히 반감이 가는 그 부인의 몸가짐을 상기하면서 벼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벼루는 연지(硯池)와 묵연(默研)을 제외하고는 매화꽃과 가지가 정교하게 투각되어 있는, 아는 것 없는 사람 눈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글쎄, 그 아낙네가 누굴까. 염집 부인 같지는 않던데.”

나는 불빛 아래서 불빛을 삼킨 자단(紫檀)색으로 깊은 광택을 머금고 잠잠한 그 벼루를 앞에 두고 상상의 날개를 폈었지요. 어쨌든 그 벼루는 유서 깊은 것일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얼마 후 가게에 들렀던 벼루에 밝은 서도가 소암 선생에게 그 벼루를 보였을 때 소암 선생은 탄성을 올렸습니다.

“일품이야. 이런 것을 무수연(無水硯)이라구 하는 거지.”

무수연은 단단하고 판이 곱고 물이 마르지 않아 입김으로 먹을 갈 수 있다는 벼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계돌 중에서도 가장 석질이 치밀한 속들이어야 해서 대단한 귀중품이라 지금 가격으로는 백오십만 원을 내겠다 해도 손에 넣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부인은 누구야?”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그 부인을 나는 얼마 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당시 H대학 미술과에 재학중이던 나는 동양화과 과장이시던 청정 선생을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해의 어느 큰 문화상의 미술부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몇 명 되지 않는 여학생들이 상의하여 수상식날 입으실 복장 일체를 마련해 드리기도 했고, 나는 다른 두 사람의 여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의 치수를

물으러 그 맥을 찾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차림새는 언제나 초라하여 그날만이라도 좀 말쑥하게 (건사하게) 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경모하고 있던 우리들의 진정이었지요.

선생님 맥은 왕십리 지나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일인들이 살다 간 집이 분명한 짜임새데 푸른 페인트칠이 거의 다 벗겨지고 드러난 나무 판때기가 썩어 가고 있는 대문 앞이 너저분했어요. 초인종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어 우리는 열려 있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선 바로 문 앞에 역시 썩은 나무의 개집이 뒹굴고 있는데 개는 없고 돌레에 쓰레기가 쌓여, 개집도 쓰레기로 버려진 것같이 보였어요.

무지러진 낮은 회양나무가 두 줄로 정성드뭇 몇 개 심어진 끝에 킁킁한 구멍처럼 열린 현관이 보이더군요. 안내를 청해도 역시 응답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고등 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여드름투성이의 소년이 하나 느닷없이 뛰어나오더니 우리에게는 눈도 주지 않고 모자를 겨드랑이에 낀 채 몸을 구부려 구두를 신었어요.

소년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소년의 제복 윗도리 호주머니에서 담배가 한 갑 튀어나와 현관 바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담뱃갑은 뜯어져 있었던 모양으로 담배 개비가 우르르 쏟아져 흩어졌습니다. 이때 목선 여자의 악다구니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여자가 쫓아 나왔습니다. 소년은 이미 나가 버렸고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뜻밖이었는지 그녀는 일순 흠칫했다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아연하여 어리벙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 보지 못한 동안 더 수척해져서 얼굴이 납색이 되어 있었지만 틀림없이 단계 무수연을 혈값으로 팔고 간 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현관 기척을 들으셨는지 여인이 알렸는지 선생님이 나오시고 우리는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선생님 방은 팔조라나요, 네 평 가량인데 도쿄노마라는 장식용 공

간이 있어 좀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화실 겸 거실로 쓰시는 모양으로 가난한 화구와 초라한 일상 용품이 함께 놓여 있는데 가구 집기라곤 쇠장식이 붙은 촌스러운 반단자와 한적(漢籍)이 펼친 대로 얹혀 있는 소박한 경상밖에 없었어요. 술을 담았던 건지 물을 담았던 건지 찌그러진 알미늄 주전자와 이 빠진 찻잔 하나가 받침도 없이 맨바닥에 놓인 것이 어찌나 스산했는지 우리는 눈둘 곳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몹시 당황한 듯 송구한 듯 자꾸 헛기침을 하셨고, 그 여인은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하고 민망해 하셨지만 사실 그 집에는 살림을 하는 흔적이 없었어요. 벽에는 후줄구레한 양복과 와이셔츠가 겹쳐 걸려 있고 시월도 중순인데 도쿄노마 위에는 빛바랜 태극선이 놓인 채이며 일본식 쇼지문 위에는 굵은 발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전기 곤로와 냄비, 도쿄노마 옆의 장식장 위에는 인스턴트 커피병 크림병 기타 오밀조밀한 향아리가 있고, 필통같이 생긴 하얀 통에는 수저까지 꽂혀 있었어요. 그런대로 정리는 되어 있지만 아무리 보아도 총각이 아니면 홀아비 방입니다.

얼마를 서로 어색해 하다가 우리는 선생님 댁을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고아(高雅) 단려한 품격 높은 작품을 생각할 때 그의 이 뜻밖인 사생활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전차길까지 걸었습니다. 큰길에 나오자 동행했던 형순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유, 도깨비에 흘렸다 온 것 같다 애. 아 그 기분 나쁜 여자!”

그 기분 나쁜 여자를 얼마 가지 않아 나는 또 만났습니다.

동란 후 웬지 발전이 뒤졌던 종로 거리에 상점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옛날의 변화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인사동 집으로 가고 있던 내가 화신 옆 금은방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허연 덩어리가 가게에서 굴러 나와 내 앞에 굴렀습니다. 희끄름한 한복 차

림의 여자예요. 뒤이어 소리소리 지르며 남자들이 뛰어나왔어요.

“이 도둑년 뭘 흠쳤어. 어서 내놓지 못해.”

두 사람의 사나이가 거칠게 여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도둑질은 내가 왜애. 패물 하나 고를려구 했던 것뿐인데에.”

여자의 목소리는 쉼 듯 꺼칠꺼칠했고 어투는 알밋게 들렸습니다.

“쳇, 패물 좋아하네. 이 여자 상습이야. 자 어서 저 파출소루!”

남자들은 서둘러 대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입니다. 삼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대혼잡을 이루는 속을 그 여자는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단계 무수연을 혈값으로 팔고 간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몸수색을 한 결과 여인에게에는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던 경관의 얼굴에는 경멸의 빛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이봐, 언제부터야?”

마구 말을 놓아 하는데 여인은 아주 습성이 된 듯 한쪽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가요오?”

경관은 교태스러운 그 모습은 무시하고 송구해 하는 금은방 사람들에게

“상습일지도 몰라요. 조심허슈. 이거 쫓구 있거든.”

오른손 인지를 세워 높히고 왼팔 혈관을 찌르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 때 나는 그 시늉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몰랐습니다만 그날 안으로 엄청난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파출소를 나온 여인은 너무 큰 망신을 당한 탓인지 다리가 휘청거리려 보였습니다. 청정 선생님 댁의 가족이라면 왕십리 쪽으로 가야 할 텐데 그녀는 몽유병 환자처럼 허렁허렁 걸어가다가 인사동 쪽으로 길을 꺾었어요.

형순이의 말대로 그리 기분 좋은 상대가 아니어서 나는 그녀를 지

나쳐 집으로 들어가는 실골목까지 한달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려다 무심히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여인이 열 발치쯤 떨어진 곳에 있는 전봇대 밑에 웅크리고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것같이 보였어요.

나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 그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왜 이러세요?”

나는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은 하지 않고 땅을 짚었던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으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겠어요. 먹은 게 관격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아 죽어요.”

그녀의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좁쌀 같은 소름이 잿빛 같은 뺨에 짝 깔리고 검고 술이 많은 머리카락이 모조리 곤두선 것처럼 까칠해 이상한 몰골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쩔 바를 모르고 몸을 부추였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재채기를 하더군요. 눈물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손으로 목을 누르고 한참을 토했어요. 이윽고 점점 숨이 가빠지고 허위적거리더니 사지가 얼음같이 식고 경련이 왔어요. 나는 그녀가 죽는 건 줄 알았지요. 사실 그녀의 눈을 검은자가 풀어져 창백한 얼굴에 뼈끔 뚫린 구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지나던 사람이 몰려들어 그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그녀의 눈을 뒤집고 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통명스럽게

“가족이요?”

“아니예요.”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니깐 왜 데리고 왔느냐고 묻더군요.

“먹은 것이 갑자기 관격이 됐다구 토하구 펄펄 뛰더니 글썽 경련을  
.....”

“관격이라구요?”

의사는 빈정거리듯 냉소하고 까무라칠 듯 죽겠다고 혈떡거리는 환자에게 처치를 서두르려 하지 않았어요.

“학생 이것 보셨소?”

그는 여인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회백색(灰白色)의 맥없고 앙상한 팔에는 무수한 바늘 자국이 나 있고 군데군데 언저리가 붉은 데도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모르는 사이에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면서 너무도 두렵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편이요. 이 여잔 중독잡니다.”

의사는 아주 냉담하게 말하고 무서움과 걱정으로 사색이 된 나에게 지금 증상은 약기운이 끊어져 일으킨 금단증상(禁斷症狀)인데 할 수 없이 응급으로 주사는 해 주겠지만 하루바삐 격리 수용하여 약을 끊도록 특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주사기에 약을 넣고

“웬 꼴을 데가 있어야지.”

투덜거리면서 그 앙상한 바늘 자국투성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아직 젊은 여대생에 지나지 않았던 나는 이 짧은 시간에 보고 들었던 믿어지지 않는 일들에 마음이 전도되어 극도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십 분쯤이나 되었을까요. 늘어져 있었던 여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이윽고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회백색이었지만 고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

았습니다. 오히려 흡족하고 행복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시를 고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곤두선 까실했던 머리털은 가라앉고 하품도 재채기도 멎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밖에 나가 있던 그가 들어오자,  
“아유, 정말 선생님 이게 무슨 추태예요. 죄송해요. 온 여자가 이래서야——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상냥하게 공손하게 애교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크게 배신을 당한 것도 같고 까닭 없이 놀림을 받은 것도 같고 교묘한 거짓말에 깜박 속아넘어간 것도 같고 치사한 연극을 보고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이 아편 중독 환자의 특징이라고 들은 것은 나중이고 나는 이 여인—— 청정 선생의 젊은 부인이 구미호같이 교활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계기로 나는 청정 선생과 가까워지고 배기다 못한 선생님이 부인을 정신과에 입원시키고 난 후 당연한 일이나처럼 그댁 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댁 형편은 참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사모님이 팔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금단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편 중독자는 어떠한 파렴치적인 일이라도 한다 합니다.

참기 힘든 격통을 잠시라도 견디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깐 절실히 필요하여 아편이란 신호를 가진 약은 쓰여지는 것이지만 일단 중독이 되면 생존을 위하여 이것을 끊기는 지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편을 쓰기 시작한 동기가 육체적 격통 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육체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고 아쉬워 이 약물의 마성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의 경우는 참기 어려운 격통을 수반하는 병고를 치른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드럽고 착한 선생님이 그녀를 모질게 다루었을 리도 없지요. 무엇이 사모님으로 하여금 이 마성의 파멸의 늪에 빠지게 했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만 고독이라는 것도 참기 어려운 아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아픔이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방 직전 십대의 어린 나이로 첫아기를 가난으로 잃고 가끔 착란을 일으킨다는 사모님입니다. 무식한 대로 단순한 대로 그녀 나름의 괴로움이 크기도 했겠지요.

선생님과 사모님의 나이 차이는 이십칠 년입니다. 사모님은 선생님이 방랑하시던 시절 지리산 밑 어느 장터 주막에서 만난 ‘각시’라고 들었습니다. 시골 부농의 딸이었는데 서출이라 한집에 살아야 했던 큰댁네 눈칫밥이 싫어 출분해 나온 여자였답니다. 두멧골 열일곱 살 각시이면서 순박한 데는 없고 요성(妖性)이 깃든 미모에 중년의 선생님은 오히려 사로잡히셨던 모양이에요.

그 전해에 아드님을 낳고 산후발로 부인이 돌아가셔서 선생님은 혼자 몸이셨대요. 고생만 하다 돌아간 부인의 삼 년을 채 못 채운 미안함보다 산골에서 만난 요정의 매력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장터 각시는 서울에 올라와 얼마 되지 않아 해방을 맞고 이어 대학 교수 사모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씨 없이도 꽃가마 탄다고 하지만 이 두메 주막 각시는 진정 꽃가마를 탄 것일까요.

잘은 모릅니다만 선생님의 고독은 사모님을 맞은 후 더욱 커졌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떠나지는 못하셨지만 이 무렵부터 선생님은 그 죽마지우를 자주 찾고, 그 어수선한 방에서 영혼의 탄식 같은 그 걸작들을 많이 그리셨죠.

한편 사모님은 선생님이 스승이 되시는 대화가 현암 선생으로부터 물려받은 명연(名硯) 단계 무수연을 비롯하여 수장하셨던 고화 가구 집물은 물론 기회 있는 대로 구해서 아껴 쓰시던 중국 석채라든가 지묵 화필까지도 들어내어 몇 푼 돈으로 바꾸고 그 마성의 탐닉에 잠겼

구요. 선생님의 그림이 돈이 되는 것을 알고부터는 소품 하나 집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뚤어져 자란 아드님은 고등 학교 때부터 아버님 그림을 흠쳐 내어 팔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모님 치료비 때문에 간신히 얻어 들은 그 적산 집을 팔고 인왕산 밑 전셋집에 옮기신 후 몇 해를 그 집에 사시면서 정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역시 사모님이 원인이 되었는데 그녀는 약을 끊었다가는 또 빠지고 끊었다가는 또 빠지고 하여 그러자니 자연 고통과 망신이 많으셨지요. 퇴직은 물론 자의에 의한 것입니다. 사의를 품으시면서 작별의 뜻이 섰겠지요. 개인전을 여셨는데 그때의 감동과 아픔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작품은 대개가 황량한 신야와 아아(嗚嗚)한 고령 암벽의 풍경이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한 포기 of 풀도 없이 솟아오른 험령의 준은 태고부터의 지각(地殼)의 아픔을 말해 주는 것 같아 귀기(鬼氣)마저 느끼게 했고 나뭇 사이로 사라져 가는 한 줄기 오솔길에서 고독과 사색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때 작품을 하실 무렵부터 진실로 산수의 진수를 터득하신 것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일체의 수식을 떠난 그 엄숙하리만큼 엄격한 필법을 통해 그의 깊은 고뇌와 높은 정신성에의 귀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누구의 손을 거쳤다가 나온 것인지 이때의 작품이 회고전에 몇 점 나와 있더군요.

“선생님 계십니까?”

누군가의 소리에 나는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의 소리는 좀더 커졌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이수행이에요.”

사모님이 나가 맞을 리는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찻다 뜨거웠다 하는 조울증(躁鬱症)이 있었습니다. 아주 애교스럽게 교태를 부리는가 하면 아는 사람도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표구사는 선생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행 씨는 아무도 나가기 전에 열려 있었을 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뒷마루로 올라오자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습니다. 그새 해가 물러나 선생님 앞의 더럽혀지고 찢겨진 그림의 반은 그늘 속에 있더군요. 표구사는,

“음.”

신음하듯 말하고 의아한 듯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떨구었지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저 부분을 도려내어 감쪽같이 배접을 해 드리겠어요. 꼭 완성시키셔야 합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걸작입니다. 모레 이맘 때까지 해다 드리겠어요. 그 때 선생님께서 손을 대시면 되십니다.”

표구사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위로하듯 격려하듯 혼자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대로 우두망찰 앉아만 계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고독하고 노쇠한 등에 다시 눈길이 갔을 때 나는 절망 같은 것이 엄습해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 등은 완고히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이수행 씨가 재차 표구할 신작들을 내어 달라고 하자 내키지 않는 동작이나마 느릿느릿 일어나 반침문을 여셨습니다. 순간 선생님은 눈에 보이게 비틀하셨고, 따라 일어섰던 나는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습니다.

반침 속은 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동안 내가 정리해 놓았던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데다가 한장 한장 화선지를 받쳐 정성껏 말아 두었던 그 귀중한 신작들이 깡그리 없어져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반침문을 닫고 물러서셨습니다. 한쪽 발이 그리

시고 있던 그 찢어진 그림 위를 덮고 있던군요. 방이 좁은 까닭만은 아닌 성싶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회고전에 한 점의 작품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이수행 씨가 감쪽같이 배접을 해 온 그 그림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고, 선생님은 다시 화필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집의 명도를 더 연기받을 수 없어 쫓겨나다시피 집을 비워 주고 선생님은 혼자 살고 있는 나의 사촌 언니집 아랫방에 우선 거처를 잡으셨지요.

한동안 골동 재벌이라는 말까지 들으시던 아버지는 빌딩을 짓는다, 농장을 사들인다, 사업을 늘어놓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외동딸인 나에겐 집 한 채 남겨 주시지 못하셨고, 미술을 전공했다고는 하나 미숙한 실력으로선 남이 원할 만한 작품 하나 제대로 제작 못 하고 가난한 기자인 남편과 두 아이 데리고 웅색한 살림을 꾸려가는 납니다.

모처럼 선생님을 도와 드리겠다고 열일곱 평짜리나마 큰방 하나 붙은 것이 대견해 계약했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를 힘이 없어 피맺힌 계약금만 날리게 되었지요. 사촌 언니도 큰길에 면한 그 아래채를 헐어 가게라도 내야겠다고 서둘고 있어 선생님은 불원간 또 자리를 뜨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라(阿修羅)의 내실과는 달리 선생님의 이름은 연일 각 신문지상 문화면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다투어 선생님의 중후 화려한 화력(畫歷)과 고매하고 온후한 성품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숙한 격식 높은 예술을 소개하고, 뜻깊은 회고전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회고전의 성황은 보신 대로입니다. 출품 작품은 거의 다 예약이 되고 그 청록상수는 이천팔백만 원으로 칠봉 물산의 서 회장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뒤편으로는 화집의 인쇄만이 남았는데 무슨 까닭인지 촬영도 색 분해(色分解)도 인쇄도 기술이나 성의가 부족해 다른 사람의 그림 같았고 제본도 형편이 없더군요.

회고전 초대일도 선생님은 녹장을 부려 테이프 절단을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악재 사실 때 사모님이 지신 얼마 되지 않는 사소한 빛을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이 아무리 곧 갓졌다고 해도 듣지 않고 야간 도주를 했다느니 뭐니 하고 모시러 간 기자 앞에서 망신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칠만오천 원쯤 되는 금액이었대요.

그날 나는 결별을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음미하여 보고 돌았습니다. 생명의 윤기가 절절 흐르는 그 현란 장려한 청록산수에서부터 험준 황량한 말년의 그 처절한 고령(高嶺)과 스산한 들과 양상한 나목에 이르는 그의 영혼과 예술의 역정—— 삶의 자취를 더듬었던 것입니다.

문득 젖은 화선지를 밟으며 방을 건너지르던 사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윽고 극심한 고통에 거의 죽어 가던 그녀의 회백색의 일그러진 얼굴이.

두메 산골 장돌뱅이들과 시시덕거리며 늙어 갔더라면 죽어 길섶 풀 밑에 버려져 썩어 갈 운명을 안으면서도 불안도 혼란도 고독도 몰랐을지 모르는 불쌍한 여인과 그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좀더 고상하고 충족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한 탁월한 예술가와—— 함께 있었음으로써 더욱 외로워졌던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란 그 어떤 것이라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모님은 선생님의 운명이고 명예이고 질곡으로서 그 무관심과 무교양과 무신경과 무성의로 선생님을 괴롭혀 오욕과 가난과 고뇌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자신도 파멸되어 갔지만 그녀로 인한 곤욕과, 더럽혀진 삶과 가난과 고뇌를 통하여 선생님의 인간과 예술은 완성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짙게 듭니다. 부처님이 말하신 4고(四苦) 중에는 인간고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지만 사는 괴로움과 인간으로 인한, 인간이어야 하는 괴로움이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소장시 팔도를 돌면서 구했던 길과 예술의 진수는 이 깊은 고뇌를 통하여 마침내 얻어진 것이라고 하면 억지가 될까요. 그러나 나는 되풀이하지만

그 모든 수식을 떨쳐 버린 두렵기조차 한 험산의 모습에 고독과 고뇌를, 그 뼈저린 고독과 고뇌를 통하여 도달한 궁극의 경지를 보았어요.

나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도사리고 있는 사모님에 대한 시커먼 증오와 경멸이 조금씩 사라지고 연민과 동정이 부드러운 입김처럼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멸 속에 스스로를 던지며 선생님에게 길을 열어 준 희생양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1978. 11.)